피 언약 (창세기 15:1-17)

▶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볼 말씀은 아주 핵심인 피 언약이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 인생에 답이 나기 바란다. 인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약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 언약 안에서 살게 되어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자는 죽는다. 이 언약이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 특별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그 영혼은 불멸이다. 이게 인간이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감각은 있지만 영혼은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영혼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분명히 영혼은 내 것이고 내 안 에 있는데 사실 관계가 없다는 말은 존재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영혼은 내 안에 있더라도 내가 영혼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냥 내 안 어딘가에 있을 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신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영혼을 본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있는데 본 사람은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해본 적 있는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영혼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법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내 것인데 나와 사실 상관없는 존재인 것이다.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렇다는 말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리 하에 있다.

▶ 내가 만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육신적인 부분이다. 우리에겐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육신의 행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육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만 할 뿐이지 결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영혼인가? 생각, 마음인가? 아니면 육신적 행위인가? 무엇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나는 내 맘대로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절대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도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도 죽어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이다.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 문제다. 고쳐야 한다. 우린 피조물이다. 우린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다. 해봤자 결과가 내 뜻대로 안되는데 괜히 고생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말 할 것도 없다. 오늘도 우린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 되고 있는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분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런 인간에 대한 다스림, 교제, 축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언약이라고 한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 한다. 언약을 위해서 하시고 언약을 향해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 언약 안에서 이루신다. 구원과 심판도 이 언약 안에서! 응답과 축복이 이 언약 안에서! 생명과 죽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언약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언약이 답이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언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사단은 틈만 나면 이 언약 안에서 살 수 없도록 틈만 나면 속인다. 인간은 꼭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언약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강조하고 그리스도 고백해야하고 매일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아야겠다! 이걸 계속 반복하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고 24시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여기에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이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며 동행해야 한다.

1. 피 언약

▶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아들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창세기 15: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그러니 즉시로 대답한다.

창세기 15:2~3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아브라함은 좀 낙심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 네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닌 직접 나은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 7절에는 그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셨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물었다. 아마 아들도 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안 생기고 있는데, 땅 까지 준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얼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묻는 것이다.

▶ 9절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찌 알기 때문에 그 짐승 중간을 쪼개어 마주하게 했다. 짐승을 쪼겠으니 피 냄새가 나지 않겠나?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 이것은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생명으로 그 약속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짐승처럼 널 죽여도 괜찮은거야!" 하는 말이다. 짐승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간다. 그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들도 불러 세운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을 할 줄 알고 짐승을 쪼개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때 어둠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다. 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할 것 이라고도 하셨다. 노예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출애굽 하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바르는 그 날 저녁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그날 저녁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400년 만에 해방 되어 나왔다.

▶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되어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물품들을 요구했는데 말하는데로 다 주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랬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성막 재료가 어디 있었겠나? 한마디도 빠짐없이 예언한대로 다 되어진 것이다. 왜 400년이 되었는지 이유도 기록하여놓았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기다리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최고조로 도달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왜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 싹 다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은 영적 심판이었다.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들을 죽

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기다리다보니 400년이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5: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다. 원래 약속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서로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영혼 구원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과 함께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었다.

▶ 이 두 가지 약속을 위해 너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다. 아주 중요한 의미이다. 첫째, 내가 한 이 두 가지 약속을 생명으로 지키겠다!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두 가지 약속은 짐승처럼 내가 내 몸을 쪼개고 지키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킬 일이 없겠지만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이 짐승처럼 죽여도 괜찮아!" 하는 의미다. 두 번째 약속으로 "이 약속은 내 약속이지 너의 약속이 아니야. 너와 나사이의 약속이지만 너와는 관계없는 내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지킬 거야! 네가 이 약속을 위하여 할 일은 없다! 내가 죽을 것이니 너는 죽을 필요 없어. 그러니 죽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룬 것을 누려라. 그리고 내게 100% 영광을 돌려라! 왜냐면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 십자가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신다. 내가 죽어 이룬 이 두 가지 약속을 너는 누리고 내게 100% 영광을 돌려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고 그 영광도 자기가 좀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영광도 차지하지 말라고 했다. 100% 하니님께 영광! 몸을 쪼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영광이다. 나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킨다! 내 생명으로 지킨다! 염려 하지 말라! 걱정 할 필요 없다. 나는 분명히 지킨다.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이다. 여기서 우린 우리 모든 인생을 끝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고 했다.

대▶ 부분 잘 믿는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걸 말한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좀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오지마. 넌 거기 있고 내가 지나갈께! 하셨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위에서 하신 두 가지 약속은 우리 육신과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걸 믿고 누리는 자는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죽으려고 노력해서 그 약속을 삶의 현장에 실현 시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할 것 없어! 내 약속이야 내가 지킬게! 오히려 너는 내게 100% 감사만 하라. 그게 끝이다! 하신다. 다시 한 번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 언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 생명의 언약

▶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그 약속의 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레위기 17:10~11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피를 먹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동물은 피가 돌아야 산다. 그래서 육신적 생명도 피를 가지고 유지한다. 근데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지막 목표는 이 피를 가지고 영적으로 생명을 주라는 것이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서 피를 쓰기 위하여 피를 만드셨다. 그래서 "피는 음식이 아니다. 본래 내 목표는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를 음식 취급해서 하나님의 본래 거룩한 목적을 깨는 자는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연결된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피를 음식 취급하지 말라! 내가 네 죄 사함을 위해 특별히 만든 물질이 피야!" 하시는 것! 오직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2:10에 나오는데 어린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한다. 보통 우리는 남은 고기는 남겨뒀다 또 먹는데 유월절 어린양의 고기는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 어린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중대한 영적행위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신자에게 그래서 이 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걸 걸어야 할 정도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쓰기 위해 피라는 것을 만들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하는 약속은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니까 이 피 언약은 당연히 우릴 살린다. 오직 이 피언약이 우릴 살린다. 오직 여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언약은 우릴 살릴 완전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린 당연히 이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살아난다.

▶ 우린 전부 인생이 살아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주신 답이다. 이 언약의 피!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때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정말 영적 지식이 생기려면 다음 단계가 또 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언약의 피, 이것이 진짜 답이네?!!" 라고 깨달아지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 때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자동으로 인생 살아난다.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 자꾸 네가 죽으려고 하냐? 내가 죽는데! 너는 오지 마! 내가 다 할테니까!" 이게 언약이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다. 그 때 일어난 사단에 대한 언약이다. 박살내는 언약! 거기에는 내 힘이 필요 없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 죽을 이유도 없다. 너는 오직 이 언약을 누려라! 그러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려라. 그리고 함께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이다.

▶ 당연히 우린 이 언약으로 인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본래 이 언약으로 구원 받은 신자에게 저주란 없다. 반드시 저주에서 나오게 되어있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양다리를 걸치면 자동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자꾸만 사단에게 기회를 준다. 이걸 박살내야 하는 것. 그 답이 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언약의 피,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이다. 사단은 당연히 정복되고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언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야 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 이 사람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한다. 완전히 치유하는 길은 이것 한 개 뿐이다. 그리고 참 된 치유는 이 언약 치유 하나 뿐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오직 피 언약이 참 치유이다. 다시 한 번 언약되기 바란다.

▶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인은 우리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답이 난다. 스스로 몸을 던져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 것이다. 죽어도 사는 것 T T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사니 더 큰 권세 아니겠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사실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언약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발견이 되어 그렇구나! 언약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고 생명 걸고 이 복음 증거 하는 모두가 되기 바란다.